

조선통신사행도를 통해 본 小童의 역할과 복식

이 주 영* · 권 영 숙**

등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Roles and Costume of Sodong Focusing on the Illustration of Choseon Delegation to Japan

Joo-Young Lee* · Young-Suk Kwon**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6. 10. 13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s and costume of Sodong as shown in the illustration of Choseon Delegation to Japan. Results of the study can be described as below.

First, as shown in the illustration, Sodong played roles as Tongin and dancer. As Tongin, Sodong provided services or made errands for his seniors. In the other role, while, Sodong *danced to comfort his seniors and show dances of Choseon to Japanese people.*

Second, Sodong wore Kwaecha over Sochangeui throughout his march with the delegation as Tongin.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two clothes made him feel convenient and easily active. In both 1700s and 1800s, meanwhile, Sodong also wore Jikryeong and Cheolik.

Third, Sodong wore Kwaecha over Sochangeui, or Danryeong and Nansam all the time when he navigated together with the delegation. When passing through Tsusima into the Japanese mainland, which meant starting international exchanges between Choseon and Japan, Sodong stucked to formality to the utmost by wearing Danryeong and Nansam.

Fourth, Sodong wore Kwaecha over Sochangeui when he performed as dancer. The two clothes were also worn by Mudong during outdoor banquets in Choseon at that time.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Sodong wore Jikryeong, Danryeong and Nansam like when he marched or navigated together with Choseon Delegation.

Key words: illustration of Choseon delegation to Japan(조선통신사행도), Sodong(소동), Tongin(통인), dancer(무용인), costume(복식)

I. 서언

通信使는 조선시대 1607년(선조 40)부터 1811년(순조 11)까지 총 12차례 조선 국왕이 일본 막부장군에게 파견하였던 400~500명 정도의 공식적인 외교사절단을 말한다. 이들의 행적을 그린 그림이 朝鮮通信使行圖인데, 여기에는 사행에 참가하였던 사람들과 그들이 입었던 복식이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사행도는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의 각 연대별 착용 복식의 형태와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식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하겠다.

통신사 복식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특정시기의 사행도를 중심으로 三使 이하 모든 신분의 복식에 관하여 개괄한 연구¹⁾와 정사, 부사, 종사관 등 삼사 복식에 대한 연구²⁾ 등이 있는데, 대부분 상류층의 복식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고, 사행에서 실무와 잡역을 담당하였던 하층신분의 복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조선통신사행도를 보면 三使 이하 여러 수행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들 중 직급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시선을 끄는 인물이 있다. 바로 소동이다. 소동은 뒤로 길게 땡아 내린 머리모양과 특유의 몸동작, 그리고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때로 부채까지 들고 있는 독특한 외모 이미지로 인해 다른 일행들과 쉽게 구별된다. 소동은 시중을 들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어린 남자 종을 말하는데 이들은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서 12차례 있었던 일본 사행에 모두 동행하였고, 상황에 따라 휘호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사행에서 실무와 잡역을 담당했던 하층신분에 대한 고찰의 일환으로 소동의 복식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통신사행에서 소동이 수행하였던 역할을 알아보고, 행렬, 항해, 무용할 때 소동이 입었던 복식을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등 각 연대별로 살펴본 다음, 연대별 착용복식의 변화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官奴婢들의 복식을 고찰할 수 있는 문헌과 실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에

서 소동의 복식을 고찰함으로써 부족하나마 소동과 사회적 지위가 비슷했던 吸唱, 庫直, 驅從, 房子, 肉直 등 다른 관노들의 복식을 이해하고, 나아가 조선시대 관노복식을 구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실증고찰을 병행하였다. 실증고찰은 소동이 그려져 있는 조선통신사행도 중 연도와 그림이 명확한 자료 15점³⁾과 국내의 관련 회화자료를 참고하였다.

II. 소동의 역할

小童은 정사, 부사, 종사관, 통역관, 제술관, 상관, 차관, 중관, 하관 등으로 이루어진 통신사의 구성원 중 비교적 낮은 직위에 해당하는 중관에 속하여 三使 이하에 分屬하였는데, 사행에 따라 대략 10~20명 정도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

조선통신사행에서 소동의 역할과 관련된 기록으로 《海槎日記》에 “三房首譯通引 金漢仲이 본래 병이 있기 때문에 배에 머물러 두고 왔었는데, 그 병이 점점 더해서 끝내 죽었다 하니, 몹시 참혹하고 가엾다. 그는 동래 초량에 사는 소동인데, 만리길에 사신을 따라왔다가 살아서 귀국하지 못하게 되었다”⁵⁾라는 구절이 있다.

위 기록에 소동이 通引이라 되어 있다. 통인은 조선시대 지방 관청에 소속된 吏屬으로서 수령의 신변에서 呼召·使喚에 응하던, 이른바 시중을 들거나 잔심부름하는 관노이다. 관노는 관아에 딸린 남자 종으로 관속 중에서 고된 일을 맡았던 가장 친한 신분이었다.⁶⁾ 따라서 소동은 통신사행에서 정사, 부사, 종사관 곁에서 시중들거나 잔심부름하는 통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동은 통신사행에서 통인으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항상 구경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多才多藝한 거의 소유자이기도 했다.⁷⁾ 소동이 부산, 대구, 경주, 밀양, 영천, 진주, 김해 등 여러 곳에서 선발되었다⁸⁾는 사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은 1711년에 소동이 말에 앉은 채로 幕府의 禁書を 무시하고 접근한 町人이 받쳐 든 종이에 揮毫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령을 무시하고 접근하여 휘호를 받을 정도로 소동은 일본인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그림 1〉 馬上揮毫圖(大系 朝鮮通信使 4권, p. 22)

소동의 다재다능한 끼는 소동 2명이 마주보고 춤을 추는 小童對舞라는 춤사위로 한껏 발현된다. 즉 소동은 범선이 출발하려고 순풍을 기다리느라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을 때 윗사람들의 지루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小童對舞를 추기도 하고,⁹⁾ 연회시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고유한 춤을 보여주기 위하여 춤을 추기도 하였다.¹⁰⁾ 소동대무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남긴 문화유산으로서 통신사행 중 일본인들에게 대단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현재까지 일본 우시마도[牛窓]에 남아 있는 남자 아이 2명이 추는 가라코 오도리[唐子踊]¹¹⁾ 춤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동은 시중들거나 춤을 추는 등 소위 여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사회에 법적 규정으로 존재했던 內外法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시대는 남녀가 서로 내외하는 법도에 의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노출이 억제되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이 연회를 할 때 음식을 만들거나 나르는 것은 여자들이 하였지만 음식시중을 드는 것은 남자 아이들이 하였고,¹²⁾ 세종 12년(1430)에 舞童모체가 시작되어 內宴과 外宴의 구분이 생기면서 고종 말까지 외연정재에는 무동이 춤을 추었다.¹³⁾ 따라서 내외법으로 인해 종래 여성들이 담당했던 상당 부분의 일들을 소동이 수행함으로써 소동의 사회적 역할이 다소 확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소동은 정사, 부사, 종사관 곁에서 시중

들거나 잔심부름하는 통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면서 휘호를 하거나, 여행지에서 윗사람들의 피로를 위로하기 위하여 춤을 추거나, 일본사람들에게 조선의 고유한 춤을 보여주는 일 등을 담당함으로써 행차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존재와 역할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소동이 몸을 부리는 일을 하여 격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들이 항상 상류층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우가 소홀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세 또한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동이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차시 말을 타고 우아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러한 이유에서 인 듯하다.

그런데 일부 사행도에 소동의 모습이 다소 여성스럽게 묘사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즉 《朝鮮通信使行列圖卷(1636)》¹⁴⁾과 《朝鮮人來聘行列圖(1811)》¹⁵⁾를 보면, 소동은 수염이 나지 않은 고운 얼굴에 머리를 길게 땅아 내리고, 여성스러운 몸짓에 때로 부채까지 들고 있어 마치 미혼의 여성을 연상케 하고 있다(그림 2). 심지어 《朝鮮通信使參入之圖(1636)》¹⁶⁾와 《神田神社祭禮圖(1719)》¹⁷⁾를 보면, 소동은 붉은색의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를 틀어 올리기도 하고 머리 위에 꽃모양의 장식을 하는 등 아예 여자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그림 3).

조선통신사행도는 대부분 일본화공이 그린 것이는데, 〈그림 2, 3〉과 같이 일본 화공이 조선의 소동을 여성스러운 이미지 내지 여성으로 묘사한 것은 당



〈그림 2〉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소동
(大系 朝鮮通信使 2권, p. 13; 8권, p. 17)



〈그림 3〉 여성으로 묘사된 소동
(大系 朝鮮通信使 2권, p. 24; 5권, p. 51)

시 일본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男娼과 관련된 성 풍속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당시 일본에서는 나이 14~15세 이상으로 용모가 특수하게 아름다운 남자 아이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 양쪽으로 땡아 늘이고 연지분을 바르고 채색 비단옷을 입게 하였는데, 그 곱기가 여색보다 배나 되었으며 官百 이하 富豪와 일반 백성이 남창을 사서 데리고 있었다고 한다.¹⁸⁾ 귀인들의 화려한 생활을 묘사한 글에 '왼쪽에는 붉은 치마요, 오른쪽에는 어여쁜 총각이다'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당시 일본 사회에서 남창은 풍속을 이루었다.¹⁹⁾ 추측컨대 일본 화공이 통신사의 일원인 소동을 미소년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남창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 소동의 모습에 그들의 남창의 이미지를 그려 넣은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으로는 실제 소동이 특별한 상황에서 여자와 같이 곱게 분장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의 남창 풍속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신이 迷惑한 풍속이라고 지적한 점으로 보아²⁰⁾ 그러한 가능성은 희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소동의 복식

1. 소동의 행렬복식

소동의 행렬복식은 소동이 조선통신사행 중 일본의 여러 도시를 지나거나 들어갈 때 입었던 복식이다. 행렬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공식적인 행사이므로 일행들은 최대한 격식에 맞게 갖추어 입

었다.

1) 연대별 행렬복식

(1) 1600년대

1600년대 소동의 행렬복식은 《丙子信使韓國使臣入皇城行繪卷(1636)》²¹⁾에서 볼 수 있다(그림 4).



〈그림 4〉 1600년대 소동복식(大系 朝鮮通信使 2권, p. 20)

〈그림 4〉에 의하면 소동은 머리를 뒤로 길게 땡아 내리고 笠을 쓰고, 窄袖袍에 無袖衣를 덧입고, 履를 신고 있다.

소동이 쓰고 있는 관모는 소동이 어린 소년이라는 점에서 초립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丙子信使韓國使臣入皇城行繪卷》의 전체 그림을 보면, 소동은 물론이고 군관을 비롯하여 하급관리인 기수, 포수, 악인, 나장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인물들이 신분에 따라 공작깃털장식과 상모장식을 하여 차이를 두고 있을 뿐 〈그림 4〉에서 소동이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모양의 관모를 쓰고 있다. 조선시대 군관과 하급관리들이 주로 썼던 관모는 전립이므로²²⁾ 〈그림 4〉에서 소동이 쓰고 있는 관모 역시 전립이라고 생각된다.

소동이 입고 있는 착수의 포는 소창의로 추정된다. 소창의는 소매가 좁고 양 옆이 겨드랑이부터 트여 있고 무가 없는 세 자락 의복으로서, 임진왜란 이후 주인 시중을 드는 사람들과 하급관리들이 주로 입었던 포제이다.²³⁾ 통신사행에서 소동이 삼사의 곁에서 시중들거나 잔심부름하는 일을 하였던 점과 입고 있는 포제의 소매가 좁다는 점 등으로 보아 소동이 입고 있는 포제는 소창의라고 생각된다.

소동이 입고 있는 무수의는 앞모습이 보이지 않아 후술할 <그림 5, 7>을 통해 보면, 깃과 무가 달려 있지 않고 옆과 뒤가 트인 네 자락 의복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5, 7>의 무수의는 소매가 없다는 점에서 배자, 전복, 쾌자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자에는 깃이 달려는데 깃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자로 보기 어렵고, 전복에는 무가 달려는데 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전복으로 보기도 어렵다.²⁴⁾ 그런데 쾌자는 깃과 무가 없는 네 자락 의복이므로 형태면에서 <그림 4, 5, 7>의 무수의와 가장 유사할 뿐만 아니라 쾌자가 주로 하급관리와 官隸의 制服, 巫服, 舞服 등으로 착용되었던 점²⁵⁾과 1811년의 통신사행에서 소동이 전립을 쓰고 쾌자를 입고 춤을 추었던 점²⁶⁾ 등으로 보아 소동이 입고 있는 무수의는 쾌자라고 생각된다. 한편, 소창의와 쾌자의 색상조화는 청색 소창의에 밤색 쾌자(1명), 밤색 소창의에 청색 쾌자(1명), 소색 소창의에 소색·밤색·청색 쾌자(11명), 분홍색 소창의에 청색 쾌자(2명), 녹색 소창의에 밤색 쾌자(1명) 등으로 다양하다.

履의 재료로는 일반적으로 革, 布帛, 絲, 麻草, 금속 등이 사용되었는데,²⁷⁾ 소동은 신분상 麻草로 만든 이를 신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초로 만든 이에는 풀의 종류에 따라 짚신, 삼신, 왕골신, 부들신 등이 있다.²⁸⁾

(2) 1700년대

1700년대 소동의 행렬복식은 <正德度·朝鮮通信使行列繪卷(1711)>²⁹⁾에서 볼 수 있다(그림 5).



<그림 5> 1700년대 소동복식(大系 朝鮮通信使 4권, p. 17)

<그림 5>에 의하면 소동은 모두 머리를 뒤로 길게 땀아 내리고 있고, 1600년대와 같이 여전히 소창의에 쾌자를 덧입기도 하고, 쾌자를 입지 않고 그냥 곧은 깃의 착수포와 곧은 깃의 광수포를 입고 리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창의의 소매가 1600년대에 비해 조금 길어지고 넓어졌으므로 소창의가 아니라 중치막일 가능성도 있지만 소매의 풍성한 정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창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곧은 깃의 착수포와 곧은 깃의 광수포는 소매가 좁고 넓은 점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의 의복으로서, 이는 직령의 유형 중 뒷길에 꿰매어 붙인 옆자락 대신에 두루마기와 같이 무가 달리고 아래자락이 두루 막힌 형태의 직령으로 생각된다.³⁰⁾ 소매가 넓고 아래자락이 두루 막힌 형태의 직령은 <朝鮮常識>에 “근세 향리가 착용하는 직령에는 바로 두루마기에 광수만 단 것 같이 된 것도 있다”³¹⁾라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하급관료의 常服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유물로는 홍희준(1761~1841)의 직령³²⁾이 있다.

그런데 18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통신사 일행의 정장복식도와 향응복식도에 소동의 복식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그림 6). 소동은 머리를 뒤로 길게 땀아 내리고, 정장복으로 소매가 넓은 하늘색 직령에 청색 세조대를 두르고 리를 신고 있고, 향응복으로 역시 소매가 넓은 청색 직령에 짙은 청색 세조대를 두르고 있다. 즉 소동은 정장복과 향응복으로 모두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은 소매가 넓은 직령을 입고 있다.



<그림 6> 1700년대 소동의 정장복식과 향응복식(조선시대통신사행렬, p. 368, 390)

한편, 1786년에 국내에서 그려진 《安陵新迎》을 보면 소동을 통인이라고 기록한 글과 함께 12명의 소동이 있다(그림 7). 6명은 곧은 것의 광수포를 입고 있고, 6명은 소창의에 패자를 덧입고 있다. 곧은 것의 광수포는 <그림 5, 6>의 곧은 것의 광수포와 동일한 형태이므로 역시 옆자락이 없이 아래자락이 두루 막힌 형태의 직령이라고 생각된다. 소창의와 패자의 색상조화는 녹색 소창의에 흑색 패자, 백색 소창의에 청색 패자, 청색 소창의에 흑색 패자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같이 소동이 국내에서 행렬할 때 입은 옷차림은 일본 사행에서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소동의 행렬 복식은 국내와 일본에서 동일했다고 생각된다.



<그림 7> 1700년대 소동복식 (韓國의 美 21, 도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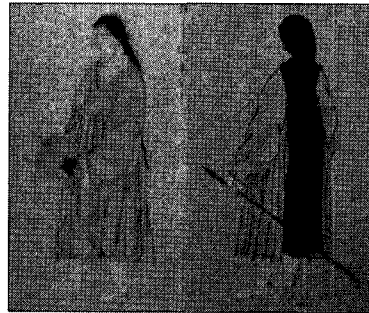
(3) 1800년대

1800년대 소동의 행렬복식은 《朝鮮人來聘大行列畧圖(1811)》³³⁾에서 볼 수 있다(그림 8). 옷이 다소 일본풍으로 그려져 있으나 前 시기의 소동 복식을 참고해 볼 때 소동은 머리를 길게 땅아 내리고 소창의에 패자를 덧입고 리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8> 1800년대 소동복식(大系 朝鮮通信使 8권, p. 36)

한편, <그림 9>는 《朝鮮人物旗仗輜輿之圖(1811)》³⁴⁾에 있는 소동의 모습이다. 소동은 소매가 넓은 하늘색 철릭을 입거나 철릭 위에 패자를 덧입고 있다. 이러한 옷차림은 행렬할 때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 1800년대 소동복식(大系 朝鮮通信使 8권, p. 46)

2) 행렬복식의 연대별 변화

소동이 행렬할 때 입었던 복식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소동의 연대별 행렬복식

시기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항목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머리모양	땅아 내림	땅아 내림	땅아 내림
쓰개	전립	없음	없음
의복	소창의 + 패자	소창의 + 패자 직령	소창의 + 패자 철릭 철릭 + 패자
신	리	리	리

<표 1>을 통해 행렬복식의 시대별 변화를 보면, 소동은 1600년대에는 소창의에 패자를 덧입었고, 1700년대에는 1600년대의 옷차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령을 단독으로 입기도 했으며, 1800년대 역시 1700년대의 옷차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철릭을 단독으로 입기도 하고 철릭 위에 패자를 덧입기도 하였다. 즉 행렬할 때 소동복식은 전 시기에 걸쳐 소창의에 패자를 덧입고 리를 신는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1700년대에는 직령도 착용되고, 1800년대에는 철릭도 착용된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로 갈수록 착용의복의 종류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직령의 소매가 점점 넓어진 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모든 포제의 소매가 광수화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소동복식으로 소창의와 쾌자가 모든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착용된 사실이 주목되는데, 이는 두 의복이 형태면에서 기능적이고 실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소창의는 무 없이 옆이 트인 세 자락 의복이고, 쾌자 역시 무 없이 옆과 뒤가 트인 네 자락 의복으로서 형태가 간소하고 탈착이 용이하며, 때로 앞의 두 자락을 뒤로 돌려 묶어 활동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으므로 하급군속 및 관노의 계층으로 오랫동안 착용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소동의 항해복식

소동의 항해복식은 소동이 조선통신사행 중 배를 타고 釜山을 출발하여 對馬島를 건너거나 입항하는 항해과정에서 입었던 복식이다.

1) 연대별 항해복식

(1) 1600년대

1600년대 소동의 항해복식은 《上判事船(1682)》와 《船繪馬(1682 추정)》에서 볼 수 있다(그림 10, 11).³⁵⁾



〈그림 10〉 1600년대 소동복식 (大系 朝鮮通信使 3권, p. 23)



〈그림 11〉 1600년대 소동복식 (大系 朝鮮通信使 3권, p. 42)

〈그림 10〉은 소동이 군관, 차상판사, 별파진 등과 함께 상판사를 모시고 澁川을 지나는 모습이다. 소

동은 머리를 길게 땀아 내리고 갈색 착수포 위에 갈색 무수의를 입고 있다. 전술한 행렬할 때의 복식을 참고해 볼 때 착수포와 무수의는 각각 소창의와 쾌자라고 생각되는데 쾌자의 형태가 다소 일본풍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11〉은 大阪의 농민이 통신사와의 만남에 감동하여 수년 후인 원록 8년(1695)에 마을의 氏神에 봉납한 《선회마》의 일부이다. 정사, 부사, 종사관, 상상관 등을 모시고 있는 6명의 소동 모두 머리를 길게 땀아 내리고 깃과 소매 끝에 검은색 선이 둘러진 흰색의 포, 즉 欄衫을 입고 있다. 난삼은 남색이나 옥색 견으로 만들며, 단령과 유사하되 깃, 소매끝, 아랫단 끝을 넓이 4~5촌의 청·흑색 견으로 선을 두른 것이다.³⁶⁾

(2) 1700년대

1700년대 소동의 항해복식은 《上上官第三船図(1711)》, 《上判事第二船図(1711)》, 《朝鮮通信使御座船屏風(1719)》에서 볼 수 있다(그림 12).³⁷⁾



〈그림 12〉 1700년대 소동복식(大系 朝鮮通信使 4권, p. 11 ; 4권 p. 9 ; 5권, p. 22)

〈그림 12〉의 3점은 각각 소동이 상상관, 상판사, 정사를 모시고 정천을 지나는 모습이다. 상상관을 모시는 소동은 머리를 길게 땀아 내리고 작은 꽃잎

무늬가 있는 홍색 단령을 입고 있고, 상판사를 모시는 소동은 무수의를 입고 있는데 무수의를 양 어깨가 솟아 있어 1600년대 보다 더욱 일본풍으로 그려져 있다. 정사를 모시는 소동은 머리를 길게 땅아 내리고 밤색 착수포에 연분홍색, 하늘색, 홍색의 무수의를 입거나 황색 착수포에 연분홍색 무수의를 입고 있는데 역시 소창의와 쾌자라고 생각된다.

(3) 1800년대

1800년대 소동의 항해복식은 <朝鮮人渡海船之図(1811)>³⁸⁾에서 볼 수 있다(그림 13). <그림 13>은 소동이 정사를 모시고 대마도에 입항하는 모습으로 소동 2명은 모두 머리를 길게 땅아 내리고 단령을 입고 있다.



<그림 13> 1800년대 소동복식(大系 朝鮮通信使 8권, p. 57)

2) 항해복식의 연대별 변화

소동이 항해할 때 입었던 복식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소동의 연대별 항해복식

시기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머리모양	땅아 내림	땅아 내림	땅아 내림
쓰개	없음	없음	없음
의복	소창의+쾌자 난삼	소창의+쾌자 단령	단령

<표 2>를 통해 항해복식의 연대별 변화를 보면, 소동은 1600년대와 1700년대에는 소창의에 쾌자를 덧입거나 난삼, 단령 등을 입었고, 1800년대에는 단

령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1800년대에 소동이 소창의와 쾌자를 입은 모습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전술한 1700년대 후반 회화자료에 준해 1800년대에도 소창의에 쾌자를 덧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동은 항해할 때에도 전술한 행렬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기에 걸쳐 소창의에 쾌자를 덧입는 일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항해할 때에는 행렬할 때 입었던 직령과 철릭 대신 당시 직령이나 철릭보다 사회적 역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단령과 난삼을 입은 사실³⁹⁾이 주목된다. 이는 통신사들이 부산을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거나 일본에 처음 입항하는 것은 양국간 국제적 교류의 시작이므로 이때 단령이나 난삼을 입어 옷차림에 최대한 격식을 갖추으로써 방문국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통신사들은 이동 중에는 주로 편한 복장을 하였으나 일본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이나 일본의 주요 목적지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목적지에서 儀禮의 儀式과 宴會가 있을 경우에는 격식에 맞는 옷차림으로 갈아입음으로써 예의를 표시하였던 것이다.

3. 소동의 무용복식

소동의 무용복식은 소동이 조선통신사행 중 윗사람들의 피로를 위로하거나 연회에서 일본사람들에게 조선의 고유한 춤을 보여주기 위하여 춤을 출 때 입었던 복식이다. 소동의 무용복식은 행렬복식, 항해복식과는 달리 자료가 부족하여 연대별 무용복식과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괄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통신사행에서 소동은 4~5명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추기도 하고, 2명이 마주보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 이는 <海游錄>에 “冠者 童子 4~5명이 비단옷을 입고 빙빙 돌며 춤을 추게 하니 倭의 남녀가 모여 구경하는 사람이 언덕에도 있고 배에도 있었으며...”⁴⁰⁾라는 기록과 “樂士들에게 북과 피리를 불게 하고 2명의 童子를 對舞하게 하니 여러 왜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⁴¹⁾는 기록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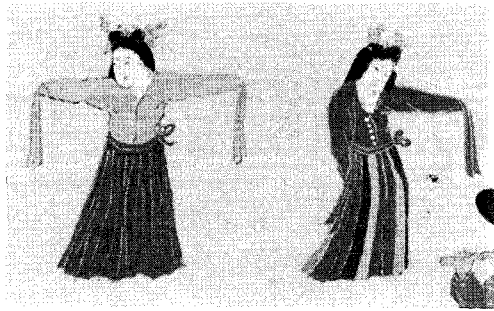
소동이 춤출 때 입은 복식과 관련하여 <東槎錄(1811)>에 “상·부사가 송별연에 친히 참석하고 잔치

를 마친 뒤에, 奉行倭가 우리나라의 풍악을 청하였기에 즉시 풍악을 베풀도록 하고, 춤을 잘 추는 小童으로 하여금 戰笠을 쓰고 快子를 입고 춤을 추게 하니, 강호의 使者와 島人들로서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⁴²⁾라는 기록이 있다. 즉 소동은 무용할 때 전립을 쓰고 쾌자를 입었는데, 전립과 쾌자차림은 전술한 행렬과 향해할 때의 복식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동은 춤출 때 전문 무용복이 아니라 평소 행렬과 향해할 때 입던 옷, 즉 소창의에 쾌자를 덧입거나 직령, 단령, 난삼 등을 입고 춤을 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동의 무용복식은 《朝鮮來朝記(1748)》⁴³⁾에서 볼 수 있다(그림 14).



〈그림 14〉 小童對舞하는 모습
(大系 朝鮮通信使 六卷, p. 74)



〈그림 15〉 小童對舞하는 모습
(新版 鮮通信使往來, p. 15)

〈그림 14〉는 통신사행에서 소동 2명이 對舞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동은 소매가 긴 포를 입고 무수의를 덧입고 있는데 상당히 여성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하고 있다. 의복이 다소 일본풍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문헌기록과 행렬과 향해할 때 소동이 입었던

복식으로 비추어 볼 때 소매가 긴 포는 소창의이고, 무수의는 쾌자라고 생각된다. 춤출 때 소매가 긴 옷을 입거나 쾌자와 같이 아래 자락이 갈라진 옷을 입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풍속으로서 춤사위를 크고 아름답게 연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소동은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넘어서어는 여장을 하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 〈그림 15〉는 소동이 여장을 하고 대무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동은 머리에 꽃장식을 하고, 소매가 좁고 꼭 맞는 황색 상의와 붉은색 치마 또는 홍색 상의와 색동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마치 女妓 2명이 춤을 추고 있는 듯하다. 착용된 의복이 당시 조선의 의복과 상당히 다른 점이 특이한데, 이는 조선의 여성복식에 관해 견문이 짧았던 일본 화공이 단지 치마, 저고리의 특징만을 묘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와같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춤을 추는 풍속은 당시 국내에서도 있었으나, 유교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조선사회에서 그 반발은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정약용(1762-1836)이 한 쌍의 무동에게 黃衣와 紅裳을 입혀 유흥을 돕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남자의 몸을 아녀자의 용태로 변화시켜 귀신도 같고 도깨비도 같아 놀랍기도 하고 현혹되기도 하니 이러한 미천한 풍속은 마땅히 혁파되어야 한다고 청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⁴⁴⁾

한편, 소동이 국제적 행사인 통신사행에서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입은 의복은 당시 국내에서 행해진 여러 공·사적인 행사에서 입은 의복보다 上位의 것이었다(그림 16, 17).



〈그림 16〉 공적인 행사의 소동복식
(韓國의 美 21, 圖150, 圖114)



〈그림 17〉 사적인 행사의 소동복식
(韓國의 美 특강, p. 73 ; 韓國의 美 21, 圖75)

〈그림 16〉은 당시 국내에서 관아에 소속된 소동이 공적인 행사에서 입은 옷차림이다. 소동은 윗사람들이 연회를 열거나 행차할 때 주로 소창의에 쾌자를 덧입었으며, 직령, 철릭, 단령, 난삼 등은 거의 입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月夜船遊圖(18C 후반)》, 《練光亭宴會圖(18C 후반)》, 《浮壁樓宴會圖(18C 후반)》, 《新官到任宴會圖(18C 후반)》, 《淡窩平生圖(18C 후반)》 등의 여러 회화에서도 확인된다.⁴⁵⁾

〈그림 17〉은 소동이 사적인 행사에서 입은 옷차림으로 공적인 행사에서보다 격이 떨어진다. 즉 소동은 일반 私家에서 열린 사대부들의 연회에서 음식시중을 들거나 주인의 행차에 동행할 때 주로 쾌자 없이 소창의만 입거나 아예 저고리와 바지만 입는 간소한 옷차림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馬上聽鶯(18C 후반)》, 《行旅風俗(18C 후반)》, 《耆老世聯稷圖(19C 전반)》, 《만폭동(18C)》, 《통천문양(18C)》 등의 여러 회화에서도 확인된다.⁴⁶⁾

IV. 결론

이상으로 조선통신사행에서 소동의 역할과 복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통신사행에서 소동은 通引으로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항해하거나 일본 내에서 행렬하는 중에 정사, 부사, 종사관, 상상관, 상판사 등 윗사람들 곁에서 시중들거나 잔심부름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소동은 舞童으로서 여행지에서 윗사람들의 피로를 위로하거나 일본사람들에게 조선의 고유한 춤을 보여주기 위하여 춤을 추었으며, 일본 사람들에

게 휘호를 해주거나 행차시 불거리를 제공하였던 다재다능한 끼의 소유자였다. 이와같이 사행에서 소동은 시중을 들거나 춤을 추는 등 다소 여성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당시 조선사회에 법적 규정으로 존재했던 內外法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즉 남녀가 서로 내외하는 법도에 의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한되자 여성들이 해왔던 상당 부분의 일들을 소동이 대행하는 시속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둘째, 행렬할 때 소동은 1600년대는 소창의에 쾌자를 덧입었고, 1700년대는 1600년대의 옷차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령을 단독으로 입기도 하였다. 1800년대 역시 1700년대의 옷차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철릭을 단독으로 입거나, 철릭 위에 쾌자를 덧입기도 하였다. 이처럼 후기로 갈수록 착용의복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직령과 철릭이 하급관료의 常服으로 널리 착용되었던 시속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행렬할 때 소동은 모든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소창의와 쾌자를 입었는데, 이는 두 의복이 형태면에서 간소하고 탈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때로 소창의와 쾌자의 앞자락을 뒤로 돌려 묶어 활동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복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항해할 때 소동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모든 시기에 걸쳐서 소창의에 쾌자를 덧입거나 난삼, 단령 등을 입는 일관성을 보인다. 그런데 항해할 때에는 행렬할 때 입었던 직령과 철릭 대신 당시 직령이나 철릭보다 사회적 역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단령과 난삼을 입은 사실이 주목된다. 부산을 출발하여 대마도를 건너거나 입항하는 여정은 양국 간의 국제적 교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때 소동이 직령과 철릭 대신 단령과 난삼을 입은 것은 옷차림에 최대한 격식을 갖춤으로써 방문국에 대한 예의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무용할 때 소동은 소창의에 쾌자를 덧입었으며, 이 외에 행렬과 항해할 때 입었던 직령, 단령, 난삼 등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용할 때 소동은 행렬이나 항해할 때와 같이 옷은 소창의와 쾌자

를 입었으나, 분장은 상당히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하였고, 심지어 여자와 같이 머리에 꽃을 꽂고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

다섯째, 소동은 통신사사행에서 행렬·항해·무용할 때 주로 소창의에 패자를 덧입었으며, 격식을 갖추고자 할 때는 직령, 철릭, 단령, 난삼 등을 입었다. 머리모양은 1636년에 행렬할 때 전립을 쓴 것을 제외하고 항상 뒤로 길게 땅아 내렸으며, 신은 주로 리를 신었다. 소동이 국제적인 행사인 통신사행에서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입은 의복은 당시 국내에서 행해진 여러 공·사적인 행사에서 입은 의복보다 훨씬 上位의 것이었다.

본 논문은 1600년대 이후의 소동복식에 관한 것이며, 이전 시기의 소동복식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弓民峯 (1982). 朝鮮 通信使 服飾의 一研究. 이화여자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英淑 (1986). 朝鮮時代 通信使 및 隨行員 服飾의 通時的 考察. 문화재관리국(편), 문화재 19.

2) 이자연 (2003). 1711年 朝鮮通信使 服飾에 관한 研究- 三使臣을 中心으로-. 복식문화연구, 11(4).

3) 본 논문에서 참고한 조선통신사행도는 다음과 같다.

NO	조선통신사행도
1	朝鮮通信使行列圖卷(1636)
2	朝鮮通信使參入之圖(1636)
3	丙子信使韓國使臣入皇城行繪卷(1636)
4	上判事船(1682)
5	船繪馬(1682 추정)
6	馬上揮毫圖(1711)
7	正德度·朝鮮通信使行列繪卷(1711)
8	上上官第三船圖(1711)
9	上判事第二船圖(1711)
10	朝鮮通信使御座船屏風(1719)
11	神田神社祭禮圖(1719)
12	朝鮮來朝記(1748)
13	朝鮮人來聘大行列畧圖(1811)
14	朝鮮人來聘行列圖(1811)
15	朝鮮人渡海船之圖(1811)

4) 소동의 인원은 《通文館志》권6 交隣下에 16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통신사일행의 구성인원이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사행도를 보면, 소동은 9-18명 정도이다. 즉 소동은 《朝鮮通信使行列圖卷》에 18명, 《丙子信使韓國使臣入皇城行繪卷》에 16명, 《朝鮮人來聘大行列畧圖》에 12명, 《朝鮮人來聘行列圖》에 9

명이 각각 그려져 있다. 따라서 소동은 사행에 따라 대략 10-20명 정도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재)민족문화추진회 (1989). 고전국역총서 해행총제 V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97.

6) 李柱媛 (1982). 평안감사 환영도의 복식. 문화재관리위원회(편), 韓國의 服飾, p. 359.

7) 辛基秀 (2002). 新版 朝鮮通信使往來. 일본: 明石書店, p. 123.

8) (재)민족문화추진회 (1989). 앞의 책, pp. 570-571.

9) 辛基秀 (2002). 앞의 책, p. 100, 123.

10) 金英淑 (1986). 앞의 논문, p. 163.

11) 가라코 오도리는 일본 牛窓町 紺浦에 소재하는 疫神社の 가을축제(매년 10월 4번째 일요일)에 봉 납되는 춤이다(朝鮮通信使文化事業推進委員會 (2003). 가라코 오도리. 조선통신사, 2, p. 15).

12) 오주석 (2003).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서울출판사, pp. 73-74.

13) 王克芬. 고승길 역 (1991). 中國舞踊史. 교보문고, pp. 97-98.

14) 런던대학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SOAS付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辛基秀, 仲尾宏 (1993). 大系 朝鮮通信使 二卷. 東京: 明石書店, p. 7)

15) 尼崎市教育委員會에 소장되어 있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八卷), p. 14)

16) 日光東照宮에 소장되어 있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二卷), p. 24)

17) 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五卷), p. 48)

18) (재)민족문화추진회(편) (1989). 앞의 책, p. 94.

19) (재)민족문화추진회(편) (1989). 앞의 책.

20) (재)민족문화추진회(편) (1989). 앞의 책.

21) 韓國國立中央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二卷), p. 18).

22)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 329.

23) 김미자 (1997). 우리나라 포의 종류와 변천.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복식 2천년, p. 254;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 239; 김영숙 (1998) 앞의 책, p. 248.

24) 李珠英 (1993). 朝鮮時代 無袖衣에 關한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7-62.

25) 李珠英 (1993). 앞의 논문, p. 63.

26) 《東槎錄》日記 6월 19일 「...上副使親往送別 宴畢奉行倭語我國風樂 卽令張樂 使善舞小童着戰笠 快子起舞 江戶使與島人莫不稱善」

27) 김영숙(1998). 앞의 책, p. 310.

28) 송미경(1997). 신발의 변천.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복식 2천년, p. 282.

29) 佐賀縣教育委員會에 소장되어 있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四卷), p. 14).

30) 직령은 곱은 깃을 가진 포제로서, 옆자락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옆자락이 있는 직령으로서, 이는 단령, 답화와 같이 거드랑이 아래에 사각형의 별도의 천이 달린 형태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옆자락이 없는 직령으로서, 이는 전체적인

- 형태가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동일하면서 거드랑이 아래에 옆자락 대신 무가 달린 형태를 말한다(李珠英 (2001). 조선시대 직령(直領)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75-76).
- 31)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篇
 - 32) 朴聖實 (1994). 天安出土 豊山洪氏 遺物小考, 석주선 기념박물관편. 韓國服飾, 12, p. 126, 134.
 - 33) 東京都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八卷), p. 34).
 - 34) 名古屋市蓬左文庫에 소장되어 있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八卷), p. 47).
 - 35) 辛基秀 소장품이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三卷), p. 22).
大阪富田林·美具久留御魂神社에 소장되어 있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三卷), 42).
 - 36) 이은주 (1997). 전통 의례복식의 변천.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복식 2천년, p. 232.
 - 37) 辛基秀 소장품이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四卷), p. 10).
伊達事務所에 소장되어 있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四卷), p. 8).
個人 소장품이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五卷), p. 22).
 - 38) 個人 소장품이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八卷), p. 56).
 - 39) 李珠英 (2001). 앞의 논문, pp. 44-46.
 - 40) 《海游錄》 上 6월 23일 「…冠童四五 衣錦衣踰躄 對舞 倭男女聚觀者 在岸在船…」
 - 41) 《海游錄》 上 9월 3일 「…使樂手奏鼓笛 兩童子對舞 群倭聚集如雲…」
 - 42) 《東槎錄》 日記 6월 19일 「…上副使親往送別 宴畢奉行倭請我國風樂 卽令張樂 使善舞小童着戰笠 快子起舞 江戶使與島人莫不稱善」
 - 43) 天理大學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辛基秀, 仲尾宏 (1993). 앞의 책(六卷), p. 74).
 - 44) 《與猶堂全書》第一集詩文集第九卷 疏 「臣嘗伏見謁聖放榜 輒以一雙舞童 著黃衣紅裳 頒賜新恩 令助游治…矧以男子之身 變作兒女之容 如鬼如魅 可驚可惑 人妖物怪 莫此爲甚…臣嘗聞此等陋習 皆狃麗末 今宜亟命革罷 永滌謬規 如以爲國朝故事 今難遽除 則第其衣裳變爲男服 以存舊觀 以祛邪色 亦不無少補矣 取進止」
 - 45) 月夜船遊圖(중앙일보사편 (1985). 韓國의 美 21. 圖 152); 練光亭宴會圖(중앙일보사편 (1985). 앞의 책, 圖150); 浮壁樓宴會圖(중앙일보사편 (1985). 앞의 책, 圖145); 新官到任宴會圖(국립국악원편 (2001). 조선시대 연회도. p. 195); 淡窩平生圖(중앙일보사편 (1985). 앞의 책, 圖114)
 - 46) 馬上聽鶯(중앙일보사편 (1985). 앞의 책, 圖74); 行旅風俗(중앙일보사편 (1985). 앞의 책, 圖11); 耆老世聯稷圖(오주석 (2003).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술, p. 73); 萬瀑洞(최순우 (2002).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학교재, p. 326); 通川門巖(최순우 (2002). 앞의 책, p. 328)